



### 암자 27개소 이르렀을 정도로 웅성

낙동강이라는 이름은 가락(伽倻)의 동쪽을 흐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본류는 태백의 함백산(1573m)에서 발원하여 봉화-상주-성주-대구-밀양-김해 등 영남의 너른 들을 적시며 유속도를 거쳐 남해로 흘러든다.

낙동강을 아홉구비로 나누어 흔히 구곡장류(九曲腸流)라 하는데, 구비를 돌 때마다 지방마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진다. 발원지인 태백과 안동댐을 잇는 두번째 구간이 명호강이다. 봉화 청량산이 바로 그 강에 발을 담고 있다.

청량산은 태백산 횡선 위쪽에서 갈라져 남쪽으로 내려온 낙동정맥의 지맥이다. 장군봉(1137m)과 일월산(1218m) 사이에서 갈라져 나온 덕산지맥이 서쪽으로 내달리다가 낙동강 강줄기 앞에서 우뚝 멈춘 산이다. 청량산은 해발 870m로, 산간오지로 그리 높을 편은 아니지만, 길기로는 설악이나 지리산에 버금간다.

청량사가 청량산에 깃든 것은 신라 문무왕 3년(663년), 삼국통일 직후 국내의 정세가 여수선 하된 무렵이었다. 원효가 이 산에 들어와 처음 지은 초막 무렵이 지금의 응진전 자리라고 전해진다. 원효 이후 크고 작은 암자들이 곁골이 들어섰는데, 한때는 암자가 27개소에 이르렀다고 한다.

청량사로 가자면 명호강을 건너야 한다. 명호강에는 12급수 여정이 주종을 이룬다. 이곳의 은어를 특별히 '육봉은어'라고 부른다. 은어는 원래 강과 바다를 드나드는 회유성 어류이지만, 이곳의 은어는 안동댐 때문에 바다로 내려가지 못하고 놀러살게 된 것이다.

### 우리나라 3대 기악(奇嶽) 중 하나

광석나루는 명호강을 건너 청량사로 들어가는 무드나루이다. 광석다리를 건너면 청량산 도립공원 표석이 서 있고, 표석 뒤에 퇴계 이황이 지은 청량산가(淸涼山歌)가 조각되어 있다.

도립공원 매표소를 지나면 오른쪽으로 청량천 맑은 물이 내려온다. 수량은 그리 많지 않으나, 곳곳에 소와 작은 폭포들이 있어서 버들치와 갈겨니 등 계류성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들깨마귀와 해오라기 등이 이들을 노리며 청량천을 오르내리고 있다.

입석에서 등산로를 따라 청량사에 이르는 구간에는 소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생강나무, 쪽동백, 당단풍과 같은 목본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응진전 주변에는 굴참나무 군락도 나타나고 있다.

산길을 걷다보면 숲 그늘 사이로 청량산의 봉우리가 얼핏 보인다. 청량산은 평소 주왕산, 영암 월출산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기악(奇嶽)의 하나로 꼽힌다.



청량사는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12개 봉우리로 구성된 청량산 등 에 입고 첩첩산중의 경사지에 자리잡았다. 청량산은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길기로는 설악이나 지리산에 버금간다.

다. 청량산의 아름다움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12개 봉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입석에서 청량사에 이르는 등산로는 금담봉의 허리를 두른 산길이다. 등산로 곳곳에 노출된 절벽단애들은 거의가 역암(礫岩) 지질을 보여주고 있다. 역암은 청량산 일대가 만 과거 어느 때 강이나 호수의 바닥이었음을 말해준다.

청량사에 당도하기 전에 퇴계 이황의 유적인 청량정사를 먼저 만난다. 일명 오산당(吾山堂)이라고도 부르는 지금의 청량정사는 퇴계 사후 순조 연간에 유림들이 지은 건물이다.

청량정사 삼거리에서 금담봉 허리를 돌아 응진전으로 이어지는 산길이 나 있다. 청량산은 행정상으로 영남에 속하고, 위도상으로도 남부에 속하지만, 태백산간의 생태계와 연결되어 북방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북방계 특성에 4백여종 곤충상 보여

곤충상으로는 딱정벌레목 124종, 나비목 99종, 잠자리목 16종, 메뚜기목 26종, 노린재목 56종, 매미목 14종을 비롯해 4백여종이 보고되고 있다.

청량산의 나비 종류로는 왕자팔랑나비, 부처나비, 부처사촌나비, 은점표범나비, 도시체나비, 그늘나비, 애물결나비, 범부전나비, 긴꼬리제비나비 등이 관찰되었다.

응진전 가는 길 주변의 버림에 부처손과 연화바위술 등이 꼭여하듯이 붙어 있고, 담장 아래에는

야생 천마가 자라고 있다. 난초과에 속하는 천마는 주로 참나무 뿌리에 다른 버섯과 공생하여 자라는 반기생성 여러해살이 초본이다. 잎은 비늘잎처럼 생겼으며, 여름에 연노란색의 꽃이 총상(繖狀) 꽃차례를 이루며 핀다. 땅속의 덩이줄기는 감자를 닮았으며, 한방 약재로 귀하게 쓰인다. 천마는 재배

하기가 까다로워 종 보존의 어려움이 있는 희귀식물이다.

청량산에서 발견되는 포유류는 12종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수달, 산양, 하늘다람쥐 등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동물이다. 또, 응진전 스님의 이야기를 빌리면, 야생고양이와 새끼 고양이



청량사 삼각우송

여 낳은 새끼들이 절과 청량정사 주변에 나타난다고 한다.

김생굴(金生窟) 주변 절벽에 구실바위취가 군락으로 붙어 있다. 이곳의 구실바위취는 청량산의 식생이 북방계임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구실바위취는 금강산, 설악산, 향토봉, 대관령 등 중부 이북 고산지대에 서만 발견되기 때문이다. 하여, 구실바위취는 주로 습하고 응달진 바위에 붙어 자란다. 구실바위취는 청량사의 지표종으로 기억해둘 만하다.

김생굴에서 자소봉까지 등산로가 나 있다. 해발 840m인 자소봉은 청량산 육육봉(六六峰) 가운데 하나이다. 청량산을 따로 육육봉이라 이름 부르는 것은 정상인 장인봉을 비롯해 열두 봉우리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 불교식 봉우리 이름 조선때 바뀌어

원래는 보살봉, 의상봉, 반야봉, 문수봉, 원효봉 등 불교식 지명이었던 것을 조선 중종 때 주세붕이 유교식으로 개명한 것이라 한다. 그가 개명했다는 육육봉은 본래 중국의 주자가 북경성의 무이산(武夷山)에 정사를 짓고 구곡(九曲)과 서른 여섯 봉우리(육육봉)의 아름다움을 찬미한 데서 비롯된다.

청량사 큰 절은 첩첩산중의 경사지에 자리한 까닭으로 전통적 가람배치가 어렵다. 일일이 석축을 쌓아 흙을 채워서 평지를 마련하고서야 전각을 앉혔다. 청량사의 석축들은 모두 청량산에서 나는 역암이나 편마암 등으로 쌓여졌다. 정 하나 대지 않았지만, 저들 끼리 줄을 맞추고 열을 맞추어 능청스럽고도 자연스럽게 석단을 만들어냈다.

유리보전과 오층석탑 사이에 전설의 소나무와 삼각우송(三角牛驢)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원효대사가 청량사를 창건할 때, 어느 날 사하촌의 한 농부가 머리에 뿔이 셋 달린 소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소가 농부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날뛰자 원효대사가 청량사로 끌고 왔다. 대사가 소를 짊어 데리고 온 후로는 성질이 고분고분하여 힘든 불사를 저 혼자 해냈다.

그러나, 소는 불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지쳐서 그만 생명을 다하고 말았다. 대사는 소를 유리보전 앞 마당에 묻었는데, 그 자리에서 가지가 셋인 소나무가 자라나 지금의 삼각우송이 되었다고 한다.

### 최근 환경부서 생태탐방로 만들어

청량산의 새들은 활활할 공간이 넓기 때문인지, 주로 청량사 큰 절 주변에 모여 있다. 특히 층층이 쌓인 석축의 틈은 새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고 있다. 심경당 석축 틈에는 박새가, 범종각 앞 석축 틈에는 흰배 지뽕새가 등지를 틀었다.

청량사 경내에서 관찰되는 초본으로는 기린초, 꽃마리, 노루발, 다화개별꽃, 달개비, 매발톱, 산박하, 산부추, 작약, 초롱꽃, 패랭이, 금강화, 원추리, 수국, 매리골드 등이 꽃을 피우고 있다. 오랫동안 불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고들빼기, 지창개, 썩바귀, 민들레, 환상덩굴, 황새냉이, 땅아주 등도 보인다.

얼마 전에 환경부서 청량산 일대에 생태탐방로를 만들기로 했다. 선정 이유는 낙동강과 청량산이 어우러져 자연경관이 수려한 데다, 퇴계 이황 등 옛 문인들이 즐겨 기행문을 남긴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청량산 지역의 난개발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 제 13차 한국 차문화연수

한국의 차聖초의선사께서 동다송을 저술하시고, 茶山, 秋史, 海居, 申愼 등 많은 명사들과 교류하며 한국의 차문화 중흥을 도모했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사)초의학술문화원(이사장 석용운스님)에서 차문화 연수를 실시합니다. 오는 7월 28(금)일부터 7월 31(월)까지 3박 4일간 열리게 될 이번 한국차문화연수는 열세번째에 이르렀습니다. 올해에는 초의선사의 탄생지였던 무안군의 송달산 아래에서 조선시대 차문화로 중심이 되는 테마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의 차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무안에서 진행될 이번 연수는 다성 초의선사의 차정신과 열을 계승하고 있는 (사)초의학술재단(이사장 석용운스님)에서 주관하며 무안군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차문화와 초의선사의 행다법과 초의선사의 현대의식과 무이차회 등을 통한 현장감 넘치는 실습과 함께 초의선사의 사상과 철학이 배어 있는 무안에서 우리 조상들의 차문화를 배워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 차문화 발전에 공헌해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 (사)초의학술문화원 이사장 석용운 합창

• 연락처: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943번지 전화 061)285-0302 / 팩스 061)285-0304

### 동신대학교 차(茶)학과 안내

#### 1. 학과소개

최근 '웰빙'이라는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갈망, 건강지향, 문화지향, 편의성추구의 소비자가트렌드에서 볼 수 있듯이 차 문화와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고 유망한 산업분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유기농 농법에 의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품종 개량, 선진 가공기술, 글로벌 마케팅과 체계적 유통에 의한 명품 브랜드의 개발, 차 효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여 2007학년도부터 차(茶)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에 의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과 중국 절강대학과의 학점교류에 의한 복수학위제(추진중), 국제 학술 세미나, 국제 차 문화 체험 행사를 통한 국제적 마인드를 갖추실 수 있게 됩니다.

#### 2. 교육목적

본 학과는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과 실험실습을 통하여, 차의 품종을 개발하고 차 산업화를 선도하며 차(茶)문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지향한다.

#### 3. 교육목표

- 차(茶)의 재배 및 차 문화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 국제경쟁력을 갖춘 차(茶)전문 인재 및 지도자 육성
-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체계 확립

-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체계 확립
- 육종개발을 통한 명차 생산 및 차(茶)품종의 자원화
- 재다기술 개발 및 명차(茶) 생산과 품질관리사 배양

#### 4. 교과과정

##### ◆ 1,2학년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및 정보전산 교육, 차의 역사, 다도 철학, 전통예절, 행다법 등 기본 교양교육
- 차문화 고전연구, 차 재배 및 재다 등에 관한 기초이론 교육

##### ◆ 3,4학년

- 육종 및 생산, 유통, 마케팅, 차 문화기획 등 차에 관련된 전공교육
- 품질평가학, 재다학, 품종개량학, 다예학, 차나무재배학, 차문화사
- 중국 절강대학과 다학계(茶學系)의 교류 협력(추진중)

#### 5. 교육환경

- ◆ 교내 : 삼매원(전통예절교육관), 산업융기속기이용생물연구센터(RRC),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BTI)의 품종 개량실, 종자 은행, 의과대학, 한약재산업학과

일 자	시 간	실시사항	비 고
1 일 자 7월 28일 (금)	14:00 - 16:50	입 연 식	등록·공지사항·반편성
	17:00 - 17:50	제 1 교 시	초의선사 현대의식
	18:00 - 18:50	제 2 교 시	초의선사 현대의식
	19:00 - 19:50	저녁 식사	발우공양
	20:00 - 20:50	만남의 시간	인사·전체모임·입원선출
	21:00 - 21:50	취 쉼	참선사제와 수행법
2 일 자 7월 29일 (토)	06:00 - 06:50	기 좌	참선
	07:00 - 07:50	신	발우공양
	08:00 - 08:50	아 침 식사	조선의 차문화사
	09:00 - 09:50	제 1 교 시	조선의 차문화사
	10:00 - 10:50	제 2 교 시	특강-뽀리까르보신부님
	11:00 - 11:50	제 3 교 시	발우공양
	12:00 - 12:50	점심 식사	휴식
	13:00 - 13:50	오락 시간	휴식
	14:00 - 14:50	제 4 교 시	초의선사 행다법
	15:00 - 15:50	제 5 교 시	초의선사 행다법
	16:00 - 16:50	제 6 교 시	조선시대 차의 종류와 재다법
	17:00 - 17:50	제 7 교 시	조선시대 차의 종류와 재다법
18:00 - 18:50	제 8 교 시	차의 품질평가	
19:00 - 19:50	저녁 식사	발우공양	
20:00 - 20:50	무이차회	무이차회	
21:00 - 21:50	취 쉼	아이참선	
22:00 ~	취 쉼	취 쉼	

일 자	시 간	실시사항	비 고
3 일 자 7월 30일 (일)	06:00 - 06:50	기 좌	참선
	07:00 - 07:50	신	참선
	08:00 - 08:50	아 침 식사	발우공양
	09:00 - 09:50	제 1 교 시	한국의 다화
	10:00 - 10:50	제 2 교 시	한국의 다화
	11:00 - 11:50	제 3 교 시	조선의 다례복
	12:00 - 12:50	점심 식사	발우공양
	13:00 - 13:50	오락 시간	휴식
	14:00 - 14:50	제 4 교 시	조선의 떡차 재다법
	15:00 - 15:50	제 5 교 시	조선의 떡차 재다법
	16:00 - 16:50	제 6 교 시	한국의 종류와 만들기
	17:00 - 17:50	제 7 교 시	조선의 식생활과 차음식
18:00 - 18:50	제 8 교 시	조선의 식생활과 차음식	
19:00 - 19:50	저녁 식사	발우공양	
20:00 - 20:50	분과 토론	주제: 한국 차문화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	
21:00 - 21:50	취 쉼	참선	
22:00 ~	취 쉼	취 쉼	
4 일 자 7월 31일 (월)	06:00 - 06:50	기 좌	참선
	07:00 - 07:50	신	참선
	08:00 - 08:50	아 침 식사	발우공양
	09:00 - 10:50	발 표	초의선사 행다법 발표 - 각반별
	11:00 - 11:50	수 료 식	수료증 교부
	12:00 - 12:50	점심 식사	발우공양
	13:00 ~	취 쉼	개인출발

- ◆ 교외(협력시설) : 영농조합지리산명차원, 초의선원, 초의선사기념관(무안군 삼향면 소재), 보성군차영농조합

#### 6. 자격증

- ◆ 다도사범증 기사 1, 2급(추진중), 재다사, 품종개량사, 품질평가사, 다예사

#### 7. 졸업후 진로

- ◆ 기업체 및 학교 다도예절 전문강사 (유통업체, 백화점, 호텔 등의 매니저)
- ◆ 차 문화 행사 연출 기획자, 차 요리 전문가, 차 미용 전문가
- ◆ 대학원 진학
- ◆ 국내외 관련기관 및 식품가공 연구소, 식약청 등의 공무원 취업
- ◆ 국제 차 전문가, tea 마케터, tea 매니저, 차 브랜드개발, 차 비즈니스리더, 차 무역업
- ◆ Tea shop 운영, tea consulting, tea house.
- ◆ 차 산업 전반에 대한 창업

◆ 입학안내 : 동신대학교 입학관리처 ☎ 061-330-3333  
[www.dsu.ac.kr](http://www.dsu.ac.kr)